

1 水陸二十萬里周遊記

하루는 朝光 編輯者를 만났더니 이 題目을 주면서 喜怒哀樂을 勿論 하고 半生의 지난 바를 五六회에 連載할 分量으로 써달라는 力勸이 있었다. 나는 이 勸告를 받고 이것이 原稿 不足을 채우기 爲함인가 혹은 요사이 雜誌에 “나의 半生과 波瀾 苦鬪記”라고 하는 이런 類似한 題目으로 某某의 글이 더러 보이더니 아마 이것도 雜誌界의 한 流行이나 아닌가 생각하였다. 編輯者인 鷺山 李殷相氏는 나의 小學 同窓이라 나의 過去를 多少 짐작 하는 데에서 雜誌 原稿거리가 되리라고 이 問題를 准 듯도 하다. 左右間에 생각 나는 대로 적어 드리기를 許諾하였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은 順次로 쓰고자 한다.

- 一. 家庭 形便과 朝鮮內의 教育和 西間島 行.
- 二. 滿洲와 西伯利亞에서 放浪生活하던 때와 그 뒤.
- 三. 中國 上海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.
- 四. 獨逸 伯林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.
- 五. 英國 倫敦에서 留學하던 때와 그 뒤.
- 六. 歸國 途中에 米國 視察하던 때와 그 뒤.

1.1 一. 家庭 形便과 朝鮮內의 教育和 西間島 行.

내가 어렸을 때에 國內의 生活을 돌아본다면 나의 家庭形便과 教育을 말하게 된다. 慶尙南道 宜寧郡 芝正面 杜谷里는 나의 生長한 鄉里이다. 이 마을 앞은 바로 洛東江과 南江의 合流하는 곳으로 風景이 아름답고 또 名勝 古蹟도 많다. 忘憂堂 郭再祐 將軍의 壬亂 戰勝 報德碑閣이 있으며 越便 咸安 땅에는 趙潤松 先生의 淸江亭이 있으니 내가 어릴 때에 동무들과 같이 뛰놀던 印象 깊은 곳이다.

나는 不幸히도 세 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寡母와 庶母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다. 나는 同復 八男妹의 끝으로 형님 다섯분과 누님 두분을 위로 모시었고 손 아래로 누이동생 둘이 있었다. 내가 자

1 라날 때에 내 집은 農業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農家로서 약 二十
2 名의 食口가 한 집에 있으니 사람이 貴하게 보이지 아니하였다. 그런
3 形便이라 집안에 선비가 많이 있었건마는 나에게는 本格的으로 글을
4 읽힐 수가 없었다. 그래서 글자 그대로 晝耕夜讀으로 낮에는 소먹이
5 고 밭매고 나무하는 모든 일을 나의 힘이 미치는 대로는 다 하게 되었
6 다. 우리마을 의 書堂은 우리 밭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밭에서 김을
7 매다가 점심때에 學童들이 점심 먹으러 간 틈을 타서는 그 書堂에 들
8 어가서 글씨가 쓰고 싶어서 남의 紙筆墨을 내어놓고 體面에 흰 종이
9 에는 쓸 수 없고 쓰고 남 은 사이줄에만 까맣게 써 놓고 나온다. 그러
10 면 아이들은 벌써 내가 다니어 간 것을 안다. 이런 式으로 밤에나 낮
11 에나 틈을 타서 글을 몇 字씩 배우는 形便이었다.

12 詩童으로 擅名, 나는 이제도 詩에 趣味는 많다. 그러나 詩人이 되
13 려고 特別히 努力하여 본 일은 없다. 내 나이 八歲 때 꽃 피고 잎 돋는
14 따듯한 봄철이었다. 하루 저녁에는 斗南齋 서당에 갔더니 여러 사람
15 이 詩를 짓는다고 韻字를 내었는데 지금에 기억되는 것은 “文”자이
16 다. 詩字를 내어놓고 글을 읊으면서 서로 부르고 쓰고 春興에 겨우는
17 것을 본 나는 절로 興이 나서 썩 나서면서 “내 글을 쓰시오”하니 여러
18 사람은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도리어 나무래기만 하였다. 그러나 나
19 는 기어이 쓰라고 하니 그러면 부르라고 許諾하기에 “春來千山和氣
20 一日人人作文”이라고 부르니 座中の 여러 사람은 웃으면서 “이 아이
21 가 六言의 賦를 지었구나”하면서 稱讚하였다. 그 後의 數年 동안에도
22 나는 如前히 晝耕夜讀으로 工夫를 하였다.

23 또 그 다음 해의 봄날에는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집안 齋室인 永
24 慕齋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詩를 짓는데 기억되는 것은 “方”字 韻이
25 다. 나는 卽景詩로 “芳草長岸詩四句, 開花幽谷興萬方”이라고 부르니
26 글을 받아쓰던 사람이 붓대를 멈추고 앉았는 態度는 無意味 不成文
27 한 글이므로 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. 그 때에 그 옆에서 보던 글
28 을 第一 잘하는 어른 한 분이 말하기를 “쓰게! 오늘 여러글 가운데에
29 는 이 글이 第一 잘 되었네” 하였다. 이 글로 말미암아 나는 詩才가 있

1 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. 이력저력 내 나이 十餘歲가 되던 어느 해 봄
2 날에는 또 斗南齋에 서 冠童 數十人이 모여서 詩會를 열고 詩를 짓
3 는다. 이 書堂 앞에 있는 밭에서 김을 매던 나는 호미를 놓고 들어가
4 서 韻字를 물은뒤에 조금 있다가 여러사람의 글을 다 쓰도록 기다리
5 어서 내 글도 쓰게 되었다. “琴”字 韻을 달았는데 그날에 다른 사람은
6 모두 抱琴이나 彈琴의 뜻으로만 달았다. 勿論 글이란 것은 거짓말이
7 많은 것이지만 그 때에 事實인즉 거문고 樂器의 그림자도 없었다.
8 나는 “十里風景生時句 百年憂樂在書琴”이라고 하니 그 때에 座中은
9 모두 눈이 둥글어졌다. 이것은 한갓 韻字를 남과 달리 달았다는 것보
10 다도 어린 아이의 글이 아니라 아주 老成한 사람의 글이라고 더욱 놀
11 란 것이다. 나는 뼈가 굵어짐을 따라 農軍의 責任이 무거워졌다. 눈
12 밭을 갈고 서리며 김을 매고 곡식으로 비고 걷우며 지계를 지고 산과
13 들에가서 나무와 풀을 비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, 밤에는 새끼를 꼬며
14 신을 삼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. 이렇게 된 나에게는 夜讀이란것도
15 許諾되지 못하였다. 그러니 어느 틈에 많은 글을 읽었으리오마는 그
16 때 韓國 末年인 隆熙時代의 每日申報쯤은 뜯어 읽을 정도가 되었다.
17 그러므로 洞리에 共同으로 보는 이 每日申報는 힘써 읽었다. 이 新聞
18 이 나에게 세상 消息을 傳하게 되었으며 또 많은 衝動을 주었다. 그
19 結果는 나로 하여금 家庭을 떠나게 한 것이다.

20 隆熙 四年 庚戌年은 韓日 合併이 되던 해이다. 이 해 陰曆 正月 보
21 림날에 十六歲의 총각이 붓짐을 싸지고 伯兄이 쓰시던 서울 가는 路
22 程記만 쥐고 가만히 집을 떠나서 無錢徒步로 서울을 目標하고 가다
23 가 第2日에 仲兄에게 붙잡히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. 그래서
24 三個月 동안이나 또 農軍의 生活을 하게 되었으니 속으로 不平은 漸
25 漸 커졌다. 그래서 마침내 第2次의 逃亡을 꾀하였다. 이번에는 方向
26 을 달리하여 南方으로 六十里되는 馬山港으로 가게 되었다. 陰曆 四
27 月初 어느 새벽에 또 單붓짐을 싸지고 가만이 집을 떠나서 當日에 馬
28 山港에 닿아서 우리 洞리 사람의 指定 旅館인 崔元則氏 집에 主人을
29 定하고 그 다음날에 예수 教會의 經營인 私立 昌信學校를 찾아가서

1 땅았던 머리를 깎고 入學을 하였다.

2 十餘日 뒤에 우리 마을 사람이 장을 보러 왔다가 偶然히 나를 만
3 나보고 놀래면서 하는 말이 “너를 잃은 너의 집에는 이제 난리가 났
4 다”하며 父兄의 크게 걱정하시고 계시는 消息을 傳하였다. 나를 만
5 나본 이분이 돌아가서 나의 消息을 우리 집에 傳한 그 다음날에 伯兄
6 은 곧 나를 찾아오시었다. 나는 學校에서 主人집으로 돌아와서 伯兄
7 에게 절을 하니 깎은 머리를 보시는 伯兄은 기가 막히어서 얼굴이 푸
8 르게 될 뿐이오 한 마디 말씀도 못하시었다. 그 다음날에야 비로소
9 말씀을 하시되 “이놈아 네 신세만 亡하였으면 괜찮지마는 우리 全義
10 李氏가 서울에서 落鄉한지 四百餘年에 宜寧 고을에서 三大姓의 하나
11 로 행세하고 지나오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어디 얼굴을 들고나서서
12 사람행세를 할 수 있겠나, 다시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서 땅아 가
13 지고 집으로 돌아오너라”하시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시었다. 그 뒤
14 에 며칠을 지나서는 아버지께서 昌申學校 마당으로 들어오시면서 啓
15 贊(그 때 나의 이름)을 찾으시었다. 教室에서 運動場으로 나온 나는
16 깎은 머리를 숙이어 절을 하였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對하신다. 그
17 리고 主人집에 돌아가셔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역시 “이 뒤에는 네가
18 다시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 가지고 故鄉으로 돌아오너라” 하시고는
19 그 이튿날에 집으로 돌아가시었다.

20 그리고 어느덧 여름 放學이 되어서 집으로 갈 때에는 머리를 뽀뽀
21 히 깎고 갔더니 나의 態度를 보신 父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었는
22 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었다. 나는 放學 동안에는 그 前과 같이 밭과
23 논을 풀을 매며 지계를 지고 꼴을 비러 다니었다. 그러나 날마다 一定
24 한 때에는 내 가 글을 읽던 書堂 斗南齋에 가서 學童들에게 算術, 理
25 科, 國語等 學科를 아는 대로 가르치어 주었더니 이제는 온 마을 사
26 람들이 말하기를 “저만 亡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버리어 준
27 다” 고 야단을 친다. 그러 는 동안에 放學其間은 다 지나갔다. 별 수
28 없이 또 父兄의 命을 어기고 馬山港 昌申學校로 가고 말았다 家庭
29 의 힘이 없을 뿐 아니라 本來 깎은 머리를 기를 때까지만 學費를 도

1 와주시겠다고 約束하신 父兄이라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 하시게 되었
2 다. 그러니 이제부터는 별 수 없이 仁丹匣(至今의 銀丹)을 들고 거리
3 로 旅館으로 돌아다니면서 苦學生의 本色을 나타내게 되었다. 그래
4 서 이력저력 昌申學校에서 普通科 一年과 高等科 一年으로 二年동안
5 修業을 하였는데 그 때에는 普通科의 學科도 專門學校의 性格을 가
6 지었다. 예를 들면 法學通論, 交際新禮, 孟子, 論語들이 그것이다. 學
7 生들의 나이는 三十歲나 되는 사람이 드물지 아니하였다. 過渡期의
8 教育인 것만큼 모든 것이 畸形的으로 되었다.

9 여러 가지 形便이 나로 하여금 오래 동안 馬山港에 엎드려 있지 못
10 하게 하였다.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時代의 衝動을 받은 것이니 곧 東
11 洋政局의 大變動이 생긴 것이다. 庚戌 韓日 合併과 中國 辛亥革命이
12 그것이다. 壬子年 四月에는 또 혼자 單붓짐을 싸서 지고 西間島로 가
13 는 길을 定하고 汽車로 舊馬山驛을 떠났다. 그러나 무슨 旅費의 準備
14 가 있는 것도 아니다. 다만 사람은 뜻을 세우고 힘쓰면 그것을 이룬다
15 는 一種의 迷信 같은 自信을 가진 것뿐이다. 그래서 먼저 겨우 大邱까
16 지 가서 李一雨氏를 찾아 車費의 補助를 받아가지고 金泉 땅에 사는
17 一家인 李直魯氏를 찾아 그분에게서 京城까지 가는 車費를 얻어 가
18 지고 秋風嶺驛에서 京城驛까지 타고 갔다. 서울에 와서는 남대문 가
19 까이 조그마한 旅館에 主人을 定하고 그 때에 普成 專門學校 夜學 商
20 科에 다니던 申性模氏를 찾아 만나서 나의 滿洲行을 말하였으나 申
21 氏도 나의 旅費 補助까지는 힘이 없었다. 별 수 없이 無錢 徒步 旅行
22 이라도 서울을 떠나서 北行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한 旅館에 든
23 사람으로 慶南 彦陽에 산다는 辛氏 한 분이 西間島 視察을 떠나는데
24 獨行이 되어서 어렵다 하며 자기가 旅費를 貸與할 터이니 同行을 하
25 자기에 어찌나 반갑든지 곧 그리 하자고 對答한 뒤에 그 날로 그 이와
26 함께 京城驛을 떠나서 安東縣으로 向하였다.

27 여기에 와서 西間島로 들어가는 路程의 指導를 받아 가지고 가게
28 되는데 그 때에 마침 江原道에서 오는 移住民 몇 집이 西間島로 가는
29 것을 만나서 同行하게 되었다. 그들은 中國 사람이 木船 두 채에 數

1 十名이 타고 가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는 中國 말을 한 마디도 아는
2 사람이 없었으니 人情 風俗이 다른 中國 사람이 사는 天地로 가는 우
3 리에게 적지 아니한 困難이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모두 어려운 사
4 람들이 同行이 되었으므로 通譯이 나 引導者를 데리고 갈 形便도 못
5 된다. 그러므로 나는 誠信泰(旅館)에 계신 徐世忠氏에게서 “관화서
6 경(官話捷徑)”이란 漢語 冊을 사 가지고 배에 올랐다. 이제는 木船 두
7 채가 安東縣 埠頭를 떠나서 威化島를 바라보고 鴨綠江을 거슬러 올
8 라간다. 아흐레만에 渾江口에 내리어서 陸路로 걸어서 사흘만에 懷
9 仁縣(이제는 桓仁縣) 城內에 到着되어 朝鮮 사람의 旅館에 主人을 定
10 하니 때는 三月 二十日頃이었다.

11 나로서는 그 때 鴨綠江 船路에서 얻은 느낌이 重大한 것을 이제 다
12 시 認識하게 되는 것이 있다. 그것은 그 때에 느낌이 내가 朝鮮語 研
13 究에 關心하게 된 첫 出發點이오 또 朝鮮語 整理로 한글 맞춤법 統一
14 案과 外來語 表記法 統一案과 標準語 查定과 朝鮮語 大辭典 編纂 等
15 의 일에 全力을 바치게 된 動機이다. 이 船行 中에 하루는 一行이 平
16 北 昌城땅인 鴨綠江邊 한 農村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사서 먹는데 朝
17 鮮 사람의 밥상에 는 떠날 수 없는 고추장이 밥상에 없었다. 一行中의
18 한 사람이 고추장을 請하였으나 고추장이란 말을 몰라서 그것을 가
19 지고 오지 못한다.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形容을 하였더니 마지
20 막에는 “웁소 땡가지장말씀이오”하더니 고추장을 가지고 온다. “사
21 투리로 말미암아 日常生活에 많이 쓰이는 고추라는 말을 서로 통하
22 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” 標準語 查定은 二十五年後에 와서
23 問題를 삼아 解決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國語에 대한 關心이 一般으
24 로 不足한 것을 아니 느낄 수 없다.